



“한국당 만행 규탄한다” 광주시의회는 11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폄훼한 자유한국당을 규탄하고 있다. 임정욱기자 jo5605@srb.co.kr

여야 4당, 한국당 의원 3명 제명 추진

민주당 등 “역사 부정·강력 조치” 맹공
윤리위 제소 추진... 한국당은 ‘선긋기’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5·18 북한군 개입’ 공청회에서 망언을 한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하고 제명을 추진키로 11일 합의했다.

한국당은 5·18 폄훼 발언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당 소속 의원들까지 진화나 나서고 당 전체의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논란에 선을 긋고 있지만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민주당 등 4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한국당 세 의원의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에 합의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 의원들의 5·18에 대한

범죄적 망언은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고, 우리 민주주의를 세운 국민들에 대한 도전”이라며 “세 의원에게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강력한 조치는 국회에서 추방(제명)하는 것이다”고 전했다.

민주당 소속 128명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한국당 세 의원의 ‘국민적 퇴출’ 운동을 벌이기로 다짐했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화상 국회의장, 여야 지도부와 5박8일 일정으로 방미에 나선 이해찬 대표의 입장을 대독해 “5·18에 대한 망발에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한국당이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고 민주주의를 지켜온 정당이라면 세 의원의 망언에 대해 당장 국민 앞에 사과하

고, 출당조치 등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도 “입법·사법·행정적으로 확정된 사실을 왜곡한 것은 대한민국 역사를 왜곡한 것이고 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재 조치를 하는 게 역사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야 4당이 세 의원의 제명을 거론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 윤리위원회 위원장이 한국당 소속이고 본회의 제명 가결 정족수가 199명이라 여야 4당 의석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별도로 5·18 유공자인 설훈·최경환 의원은 오는 14일 아들 의원과 지만원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 할 예정이다.

한국당 내에서도 세 의원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김무성 의원은 이날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입장문’을 통해 “역사적 평가가 끝난 5·18을 부정하는 것은 의견 표출이 아니

라 역사 왜곡이자 금도를 넘어서는 것이다”고 밝혔다.

장제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5·18민주화운동을 부정한다면 우리는 대중정당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국회 최다선 의원인 서정원 의원은 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에 대한 비판 대열에 동참했다.

서 의원은 “당시 조선일보 사회부 기자로 9박10일간 광주에서 현장을 취재했고, 당시 북한군 600명이 와서 광주시민을 부추겼다는 것은 찾아볼 수 없었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분명한 역사적 진실이 있고 현장을 직접 본 사람이 있는데 민주화운동을 중북좌파의 문제로 왜곡해서 거론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당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번 폄훼 발언과 관련 대국민 사과하고 당 차원의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지만원 5·18 왜곡 공청회 방청기

역사 왜곡에 앞장서는 한국당



김혜연
美노스웨스트대
박사과정

2019년 2월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김진태, 이종명과 5·18 역사학회의 공동 주최로 공청회가 열렸다.

공식 명칭은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였으나 행사의 실제 목적은 5·18 왜곡을 통한 극우 보수 세력의 결집 및 세력 강화였다. 5·18 왜곡은 박근혜 구속 이후 위기에 처한 자유한국당이다가를 내내 총선을 겨냥해 국면 전환을 꾀하는 지렛대이다. 나아가 다가올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염두에 두고 부정적인 여론을 결집시키거나 국민 갈등을 조장하여 조사위원회의 힘을 미리 꺾으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대회의실은 강당의 수용 인원인 400여석을 초과해 약 500여명의 태극기 부대원이 동원된 흡사 관세 행사로 보였다. 행사의 시작과 함께 이내 폭력 사태가 벌어졌다. 김순례와 백승주 국회의원이 5·18의 사법적 결정과 역사적 의미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말을 쏟아내자 대회의실 정중앙부에 가장 높은 곳에서 오월 단채 회원들이 연단을 향해 강하게 항의를 한 것이다. 태극기 배지를 모자 애 단 남성 노인들이 이들에게 간이의자를 집어 던지고 주먹질을 했다. 현장을 카메라에 담고자 기자들이 몰려들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5·18 단채 회원들은 공청회에 참석한 이들의 완력에 의해 밖으로 떠밀려 나갔다.

이내 지만원 씨가 단상으로 올라와 ‘조선중앙TV가 방영한 광주사태 영상’이라는 제목을 붙인 15분 길이의 영상을 상영했다. 영상에 나오는 강한 어조의 북한 사투리가 대회의실을 가득 메웠다. 반공 이데올로기는 극우 세력을 결속하는 힘이자 5·18을 억압하는, 덮고 덮었으나 놀랍도록 여전히 유효한 핵심 동력이다.

본 행사의 왜곡 내용의 핵심은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 특수군이 주도한 10일간의 대남 게릴라 전쟁이었다”는 것이다. 적화 통일 위기에 놓인 남한을 구하기 위해 광주 진압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지 씨가 재구성하는 5·18 이야기

속에서 영화 ‘택시 운전사’에 등장한 독일 기자 위르겐 힌츠펠터는 북한이 고용한 간첩이 되었다. 힌츠펠터가 촬영한 영상은 당시 북한 내부에 실시간으로 스트리밍 되고 있었다고 지 씨는 주장했다. 나아가 그는 화질이 좋지 않은 항쟁 당시의 사진과 북한 정치 행사의 사진을 스크린에 나란히 띄운 후, 사진 속 인물이 동일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안면 인식 기술이라고 주장하는 지 씨의 연구 방법은 사실상 주먹구구식으로 비속한 얼굴 찾기로 보였다. 나아가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현재 활발하게 활동 중이거나 과거에 대통령 후보로 이름을 올린 정치인, 언론인, 공무원들이 간첩 활동에 가담했다는 암시를 더함으로써 참석자들을 현혹시키고 있었다.

행사의 끝부분에 이르러 지 씨는 자신에게 향해진 반론에 대한 재반론을 펼쳤다. 예를 들어 하태경 의원이 “1980년 당시 10세 미만이었다면 아이들이 특수 게릴라 군이나”는 지적에 그는 “북한 게릴라 군이 아이들을 전선 최전방에 배치하기 때문이며 무엇보다 북한 탈북자의 증언은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런 허무맹랑한 주장을 일부 극우세력들의 행동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다. 지 씨가 유튜브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조직적으로 세력을 확장하여, 5·18 민주화운동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젊은 세대에게 중대한 역사적 오류 및 가치관의 혼란과 피로감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5·18 진상규명 위원회의 활동을 선제적으로 무력화시켜 자유한국당 및 극우 세력의 재결집을 의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치적 의도를 고려할 때 지 씨의 발언에 대해 사법적 단죄를 실현하는 것과 함께 그들을 비호, 지원하는 세력들의 불순한 의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5·18 왜곡을 저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핵심과제가 아닐 수 없다.

5·18 망언 주역들 뒤늦은 사과·해명

김순례 “물의 일켜 유감”
김진태 “상처 줄 의도 없어”

5·18 민주화운동 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11일 “이유를 불분하고 제 발언으로 인해 상처받은 국민 여러분과 5·18 유공자 및 유족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어 “5·18 민주화운동은 1993년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가차원의 재평가가 이뤄졌으며 그 역사적 상징성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견도 있을 수 없다”며 “따라서 토론회에서 제기된 북한군 개입설을 비롯한 각종 5·18 관

련 비하 발언들은 한국당의 공식입장이 아닐뿐더러 본 의원 역시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제가 이야기한 부분은 오로지 5·18 유공자 선정 관련해서 허위로 선정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좀 더 선정기준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만 들어서 ‘허위유공자’를 철저히 걸러내는 것이 ‘유공자’ 분들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전담과정에서 잘못된 표현으

로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다시 한번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 및 유족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한국당 원내대변인인 김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18 진상 규명 대국민 공청회’에서 “중북좌파들이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집단을 만들어 세금을 추내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5·18을 폄훼하는 성격의 공청회를 주최해 논란이 일고 있는 김진태 의원은 이날

“공청회 참석자들의 발언은 주관적인 것이고 향후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것”이라며 “‘진짜유공자’ 분들에게 상처를 주려는 의도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공청회를 열게 된 배경과 관련해 “작년에 여야합의로 제정된 5·18진상규명법에 의하면 ‘북한군 개입여부’를 진상규명하도록 돼있다”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이번에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며 “국민혈세가 들어갔으므로 우리는 알권리가 있다”면서 거듭 5·18 유공자 선정 경위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뉴스

www.seoyeong.ac.kr

“광주형 일자리,
그 행복한 동행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2013년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 종합우승

2016년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 종합우승

2017년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 EV부문 최우수상 수상

2017 KSAE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

대학생 자작 자동차대회

전기자동차(EV)부분 최우수상 수상, 바하(Baja)부분 은상 수상(2017년)
Baja 2회 종합우수 수상(2013년, 2016년)

서영대학교 자동차과

“나를 알아주는 대학, 꿈이 있는 대학, 미래가 즐거운 대학”
광주광역시 북구 서강로 1 대표전화 : (062)520-5114